

# 보석찾기 끝낸 '許心'은 누구에?

## 허정무 감독 내일 예비명단 30명 발표 이동국·이근호·안정환 등 합류 유력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 참가할 태극전사 예비 후보 30명이 마침내 가려진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플래툰콘서트홀에서 남아공 월드컵 참가선수 예비명단을 발표한다.

물론 월드컵 본선 참가선수 최종명단에 들 23명의 윤곽도 이미 드러난 상태이지만, 허 감독은 마지막까지 선수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부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먼저 30명의 예비 엔트리를 밝힌다.

대한축구협회는 허 감독이 확정한 예비 엔트리를 대회 개막 한 달 전인 5월11일까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엔트리는 개막 열흘 전인 6월1일까지 FIFA에 통보해야 한다.

허 감독은 월드컵 개막 전 국내에서 마지막 치르는 다음 달 16일 에콰도르와 친선경기 후 최종 엔트리를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또 부상 등을 대비해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한 선수 중에서도 2~3명을 오스트리아 전지훈련 등에 참여시킬 생각이다.

지난달 3일 영국 런던에서 치른 코르티부아르와 평가전과 최근 소속팀 경기에서 활약을 펼친 선수 중에서도 허 감독의 엔트리 구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일단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세 명은 무조건 골키퍼를 뽑아야 한다.

최근 경기력 논란에 휩싸이긴 했지만 대표팀 주전 수문장 이문재(수원)를 비롯해 정성룡(성남), 김영광(울산)의 발탁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필드플레이어 중 공격수 박주영(AS모

나코)과 미드필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정용(볼턴)·기성용(셀틱)·수비수 이영표(알 힐랄)·이정수(가시마) 등 허 감독의 신뢰가 두터운 국외파를 비롯해 K-리그를 누비는 미드필더 김정우(광주)·수비수 조용형(제주) 등은 최종 엔트리는 물론 사실상 베스트11의 자리까지 예약한 선수들이다.

공격수 가운데에서는 이동국(전북)과 이근호(이타와), 그리고 예정의 기량을 되찾아 최근 코치진의 눈도장을 찍은 베테랑 안정환(다렌)의 합류도 유력하다.

선배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20세 이하 대표 출신 이승철(서울)도 예비 엔트리에 무난히 들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과 이정용의 뒤를 받칠 측면 미드필더로는 김재성(포항)이 오른쪽, 발동배 부상에서 회복한 염기훈(수원)이 왼쪽 자리를 차지할 공산이 커졌다.

물론 지난해 20세 이하 대표로 맹활약했던 김보경(오이타)도 염기훈과 끝까지 경쟁하면서 최종 엔트리 한 자리까지 차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 “조난자 구조해야” 오은선 하산 멈춰

## 캠프4 도착 후 스페인 원정대 구조 요청받아

여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하고 안나푸르나(8091m)에서 내려오던 오은선(44·블랙야크) 대장이 스페인 원정대의 구조 요청을 받고 하산을 멈췄다.

27일(이하 한국시각) 안나푸르나 정상에 오른 오 대장은 28일 새벽 12시45분께 캠프4(7200m)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런데 세계에서 6번째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후아니토 오이아르자발 대장이 이끄는 스페인 안나푸르나원정대 대원인

플로가 7700m 부근에서 탈진해 쓰러져 있다며 오 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후아니토와 다른 스페인 대원 1명은 동상에 걸리고 탈진한 상태에서 이날 겨우 캠프4로 내려왔다.

베이스캠프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오 대장은 예초 이날 오전 베이스캠프(4200m)로 출발하려던 일정을 미루고 구조에 힘을 보태고자 캠프4에 머물고 있다.

오 대장 일행은 전날 등정을 위해 20시간에 가까운 강행군을 해 체력이 바닥나고 먹

을 음식마저도 거의 남지 않아 직접 구조에 나서진 못하고 있다.

플로가 있는 곳은 캠프4에서도 7시간 이상 올라가야 하는 먼 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대장은 “가서 구할 수 없지만 물과 음식·산소 등을 지원하도록 대기해야 한다”며 하산을 미뤘다.

캠프2(5600m)에 있던 오 대장 원정대 세르프와 3명은 자일과 배낭·산소통 등을 짊어지고 스페인 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캠프4로 떠났다.

안나푸르나 국제원정대 소속 의사가 탐구조헬기도 댔으나 8000m에 가까운 높은 곳이라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남아공월드컵 우승 1순위는 스페인”

## 한국 축구팬 43% 꼽아

한국 축구팬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우승국으로 ‘무적함대’ 스페인을 꼽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축구전문 월간지 베스트일레븐(www.besteleven.co.kr)은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와 함께 7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2010 남아공 월드컵 예상 우승팀은?’이라는 주제의 설문 조사에서 총 1만 2327명의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5260명(42.7%)이 스페인이라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베스트일레븐은 스페인이 우승 후보 영수위로 뽑힌 데 대해 “객관적으로 가장 화려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오래도록 손발을 맞춰 조직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유럽선수권대회(유로2008) 우승으로 이른바 ‘메이저대회 울렁증’까지 극복한 점 등에서 많은 팬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조별리그 2차전 상대인 남미 강호 아르헨티나가 2143표(17.4%)를 얻어 2위로 뽑혔고, 월드컵 최다 우승국(5회)이자 ‘영원한 우승후보’인 브라질이 2042표(16.6%)를 받아 간발의 차로 3위를 차지했다.

##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박지성 에세이 출간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의 축구 인생을 담담하게 풀어낸 자전적 에세이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린다’(중앙북스·1만3000원)를 출간했다.

지난 2006년 자신의 첫 에세이 ‘멈추지 않는 도전’을 펴내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정을 받았던 박지성은 월드컵 개막을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이 책을 통해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극복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의 꿈을 이룬 비결을 솔직하게 엮어냈다.

5월 초 발간되는 박지성의 에세이는 인터넷서점을 통한 예약 판매를 시작했고, 박지성의 캐릭터와 친필 서명(프린트본)이 담긴 두건을 독자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 올리치 해트트릭...獨 뮌헨 챔스리그 결승 선차

## 佛 리옹 3-0 완파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 올랭피크 리옹(프랑스)을 꺾고 9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다.

뮌헨은 28일 오전(이하 한국시각) 프랑스 리옹의 스타드 드 제를랑에서 열린 2009~2010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크로아티아 출

신 공격수 이바차 올리치의 ‘원맨쇼’로 리옹을 3-0으로 완파했다.

지난 22일 1차전 홈 경기에서 아르연 로번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겼던 뮌헨은 1·2차전 합계 4-0으로 리옹을 제치고 결승에 선차했다.

이로써 리옹은 2000-2001시즌 유럽 프로 축구 최강자가 된 이후 9년 만에 다시 대회 결승에 올라 통산 다섯 번째 우승에 대한 희망을 불렀다.



빛속을 뚫고 28일 경북 구미에서 영주까지 이어진 ‘투르 드 코리아 2010’ 제7구간(144km) 경주에 참가한 엘리트 선수들이 의성군 비안면의 빛길을 질주하고 있다.

# ‘서석원 헤딩골’ 목포시청 감격의 첫 승

## 내셔널리그 6R 할렐루야 1-0 꺾어

실업 축구 새내기 목포시청 축구팀이 창단 후 감격의 첫 승을 거뒀다. <사진> 김정혁 감독이 이끄는 목포시청은 27일 목포국제체육센터에서 벌어진 안산할렐루야와의 2010 대한생명 내셔널리그 전기 6라운드 홈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며 이번 시즌 6경기 만에 마수결이승을 거뒀다.

이번 시즌 내셔널리그에 처음 참가한 목포시청은 지난 5경기 동안 2무 3패로 첫 승에 목말랐었는데 이날 안산할렐루야를 맞아 후반 15분 터진 서석원의 멋진 헤딩 결승골을 끝까지 잘 지켜 첫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첫 승에 목말라 한 것은 선수 뿐 아니라 목포시청 축구팬들도 마찬가지. 홈경기는 물론 원정경기 등에 빠지지 않고 응원하러 다녔던 목포시청 C직원은 “올해 처음 내셔널리그에 참가해 크게 욕심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 김흥국 실업축구 해설 도전

가수 김흥국 씨가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객원 해설위원으로 나선다.

내셔널리그(회장 권오갑)는 28일 “김흥국 씨가 30일 오후 7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고양 KB국민은행과 인천 코레일의 2010 대한생명 내셔널리그 전기 7라운드 온라인 생중계 때 객원 해설위원을 맡는다”고 밝혔다.

평소 축구광으로 소문난 김흥국 씨는 “그동안 쌓아온 축구 경험과 열정을 통해 해설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내셔널리그는 올해 ‘F4 캠페인’(Fun-Favor-Fair-Family)을 통해 축구팬에게 재미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매 라운드마다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다.

주식회사 지티

각 시·군 대리점 모집

062-371-7095

011-601-7701

아이엘리시아 가족모집

주식 프리이탈, 무배 마다엘리시아에서유망한인재를모집합니다.

062-671-1199